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김 병 희**

1. 머리말
2. 매소성의 위치 비정
 - 가. 『삼국사기』 수록 매소성 전투 관련 기사 분석
 - 나. 『삼국사기』 「잡지」의 매소성 관련 지명 분석
3. 매소성 전투의 실상
4. 맺음말

1. 머리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가 당과 맞서 싸운 매소성(買肖城) 전투는 기벌포(伎伐浦) 전투와 함께 신라사의 향방을 매듭지은 중요한 전투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매소성 전투를

* 본 논문은 2012년 2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논문, 「羅唐 戰爭 期の 買肖城 戰鬪 研究 - 位置 比定과 675年の 戰況 復原을 中心으로-」 및 2014년 3월 22일 韓國古代史探究學會 제39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육전에서, 기벌포 전투를 수전에서 신라가 당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당의 한반도 지배 의지를 완전히 상실시킨 결정적인 계기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처럼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 대해서는 승리와 그 역사적 의미를 줄곧 강조해왔지만¹⁾, 정작 이들 전투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련 사료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특히 매소성 전투는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이에 본고에서는 매소성 전투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 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사료의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먼저 매소성의 위치를 비정해 본 뒤, 당시의 전황을 고려하여 매소성 전투의 실상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위치 비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고, 매소성 전투 관련 사료를 재해석하여 도출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부족한 사료와 필자의 미진한 능력으로 인해 오류 또는 비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질정(叱正)을 바랄 뿐이다.

- 1)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과 입장이 다른 연구도 국내 학계에서 등장하였는데, 토번의 세력 확대에 대한 당의 군사적 대응이 나당전쟁(羅唐戰爭)의 종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 2) 현재까지 ‘매소성’ 또는 ‘매소성 전투’를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민덕식, 「買肖城址考」,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知識産業社, 1988;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1989; 安國承, 「買肖城 研究」, 『경기향토사학』 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李恩影, 「買肖城 位置 比定과 戰鬥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安國承, 「買肖城의 位置 批定」, 『京畿郷土史學』 11, 全國文化院聯合會 京畿道支會, 2006; 서영교, 「당보금선단(唐補給船團)의 격파와 매소성 전투」,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이상훈, 「매소성 戰役과 신라의 승리」,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장광열, 「매소성(買肖城) 전투가 7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정치변화에 주는 함의」, 『軍史研究』 135, 陸軍軍史研究所, 2013.

2. 매소성의 위치 비정

매소성의 위치로 비정되는 지역은 여러 곳이 있다.³⁾ 그러나 근거가 빈약하거나 근거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제외하면, 학계에서는 연천 대전리(大田里) 산성 또는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학계의 경향은 양주 대모산성설⁴⁾보다는 연천 대전리 산성설⁵⁾을 지지한다는 느낌이 강하다.⁶⁾ 이에 해당 사료를 먼저 살펴보겠다.

가. 『삼국사기』 수록 매소성 전투 관련 기사 분석

매소성 전투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 사료는 다음의 하나뿐이다.

- A. 29일에 이근행(李謹行)이 (당의)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당군을) 도망가게 하고는 전마(戰馬) 30,380필을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이처럼

3) 지계홀, 대모산성(양주산성), 남방리 토성, 대전리 산성, 초성리 산성, 감악산, 인천, 사파산성 등. 안국승, 앞의 논문, 2006, 219~220쪽 및 235~241쪽.

4) 李丙燾 譯註, 『國譯 三國史記』 國譯篇, 乙酉文化社, 1977, 123쪽; 이은영, 앞의 논문, 2005.

5) 민덕식, 앞의 논문, 1988; 민덕식, 앞의 논문, 1989; 안국승, 앞의 논문, 1997; 鄭求福 外,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684~685쪽; 안국승, 앞의 논문, 2006; 이상훈, 앞의 책, 2012, 205쪽.

6) 매소성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연구도 있다. 서영교의 경우는 매소성 전투를 다루면서 매소성 전투 직전에 벌어진 천성(泉城) 전투에 주목하여 천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매소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서영교, 앞의 책, 2006, 224쪽) 즉, 연천과 양주 중 그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장광열의 경우는 매소성의 위치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지만, 사료를 종합해볼 때 현재 경기북부 일대 임진강과 연계된 장소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며 언급을 보류하였다.(장광열, 앞의 논문, 2013, 140쪽)

이르렀다.⁷⁾

A는 밑줄 친 부분의 원문이 ‘我軍擊走之’인데, 이는 ‘도망가는 당군을 공격하여’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로 해석하든 신라군과 당군 간에 접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 다른 무엇인가에 급했던 당군이 후퇴했다는 내용으로 보면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당군은 병력이 20만 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말과 병기를 남겨놓고 도망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신라군과 당군의 정확한 병력 및 규모가 어떻게 되든⁸⁾ 간에 2가지 이유를 상정해볼 수 있다. 당군의 입장에서 볼 때 유인책으로의 전술 변화 또는 보급을 위한 이동이다.

당이 전술을 유인으로 바꾸었을 경우로 보면, 남겨놓은 말과 병기는 일종의 미끼에 해당된다. 그런데 미끼가 30,380필의 말과 이에 필적하는 수의 병기라면, 미끼치고는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른다.

반면 보급을 위해 안전한 후방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보면, 남겨놓은 말과 병기는 신속한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짐이 된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매소성 전투의 날짜가 29일, 즉 9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사료에 기록된 9월 29일은 음력이며, 양력으로 따지면 675년 10월 23일에 해당된다.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므로, 당에서도 이 무렵에 추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약간의 차이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추수 이후 조세의 수취와 보급품의 수송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맞아떨어지는 시간대임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매소성 전투 직전의 당군에게 보급은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9월조. “二十九日 李謹行 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8)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소성 전투 당시 신라군과 당군의 병력 및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잘 알 수 없다.

나당전쟁(羅唐戰爭)의 개전⁹⁾ 이후 675년 9월 매소성 전투까지 최소한 몇 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당군이 한반도 전선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병력의 교체를 통한 해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675년 2월 칠중성(七重城) 전투에서 승리한 당군은 이후 매소성을 포함한 지금의 경기도 북부에서 교체 없이 계속 주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관련 한중 사료에서 675년 2월 이후부터 675년 9월까지 나당전쟁과 관련된 전투 기사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¹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군부대가 원정 지역에 장기간 있게 되면, 항상 보급이 문제가 된다. 즉, 현지 조달을 한다고 해도 시간과 양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상당 부분을 보급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음력 2월부터 9월까지의 봄부터 가을까지 날씨가 따뜻했던 기간이며, 한반도에 투입된 당군은 직접 보유한 것과 현지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급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9월부터는 보급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9일 신라군의 매소성 공격이 시작되자 당군은 어쩔 수 없이 보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소성에서 철수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신라군은 당군이 이동에 불필요하여 놓고 간 말과 병기를 쟁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 따라서 매소성 전투를

9) 나당전쟁의 시작은 학계의 다수가 670년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669년이나 67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연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나당전쟁의 개전 시기를 언급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자 한다.

10) 어떤 지역을 점령하였다면,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수성(守成)을 하거나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때 일부 병력은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주둔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경우는 신라와 당 서로가 소강상태나 교착상태로, 교전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교전이 있더라도 신라와 당 모두 기록으로 남길 만큼 승패가 갈린 전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39차 월례발표회에서 필자의 토론자였던 한준수는 ‘퇴각시 남긴 3만 필의 말과 병기 등은 신라군이 획득할 경우 전투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당군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인 전술이나 보급 목적의 후퇴라는 견해는 전략이나 전술 면에서

수적 열세에 있던 신라군이 수적 우세에 있던 매소성 주둔 당군을 획기적인 전략이나 뛰어난 전술로 공격하여 승리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A에서 추정된 내용을 토대로 매소성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도출해보자. 이를 위해 우선 매소성 주둔 당군 20만 명에 대한 사항부터 검토해보겠다. 필자가 연천 대전리 산성과 양주 대모산성을 비롯하여 경기도 북부의 여러 산성들을 직접 답사해본 결과, 그 어디에도 성(城) 내부에 20만 명이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그렇다면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과장일까? 아울러 남겨놓고 갔다는 말 30,380 필이라는 것도 거짓일까?

A의 기록은 신라 당대가 아니라 후대인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의 기사이다. 어떤 기록이든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편찬자는 지금의 경기도 북부에는 20만 명이 들어갈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소성에 당군 20만 명이 주둔하였다고 기술하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매소성 전투는 나당전쟁의 기간 동안 있었던 육전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다. 매소성 전투 직후 다른 전투들이 있었지만, 이 모두를 매소성 전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이후에 당의 신라 침공은

이해하기 힘들며, 특히 말의 경우 고대 군사전략이나 무기체계면에서 전략물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병기의 경우 한준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기지만, 말의 경우에는 생각이 다르다. 당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던 신라가 당군이 버리고 간 3만 필의 말을 전투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토론 중에 식량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어쨌든 말이 전투 자체에 곧바로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영교는 '말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후속 보급이 없다면 말은 기름이 떨어진 탱크나 마찬가지다.'(서영교, 앞의 책, 2006, 237 쪽)라고 하였는데, 필자는 이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필자 역시 당군이 불필요해진 말들을 왜 식량으로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채 후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사실상 없었다. 676년에 벌어진 기벌포 전투는 수전이고 시기도 달라 함께 취급할 수 없기에, A의 기록에 등장하는 병력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편찬자 역시 매소성 전투를 나당전쟁이 종결되는 계기로 보았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최근까지 학계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왔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결국 당군 20만 명이란 그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 전선에 투입되었던 모든 당군 또는 적어도 매소성을 필두로 지금의 경기 북부에 주둔하고 있었던 모든 당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다.

- a. 또한 우리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크고 작은 열여덟 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는데, 6천 4십 7명의 목을 베었고 말 2백 필을 얻었다.¹³⁾
- b. 겨울 11월에 사찬(沙漉) 시득(施得)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薛仁貴)와 소부리주(所夫里州) 기벌포에서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이기고서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¹⁴⁾

a는 매소성 전투 직후 벌어진 다른 전투에 대한 기사로, 시기는 675년 10월 중으로 추정된다. 신라와 당의 장수 이름 및 구체적인 전투의 과정은 여기에서 알 수 없고, 신라가 승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결과물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매소성 전투는 당의 장수 이름은 알 수 있는 대신 신라의 장수 이름과 구체적인 전투의 과정은 알 수

12)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본고의 각주 15)를 참고할 것.

1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조. “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14)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6년 11월조. “冬十一月 沙漉 施得 領船兵 與薛仁貴戰 於所夫里州 伎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없고, 신라가 승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결과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와 서술방식에 있어 유사성이 엇보인다.

b는 676년 11월에 벌어진 기벌포 전투에 대한 기사이다. 여기에서 신라와 당의 장수 이름은 알 수 있는 대신 구체적인 전투의 과정은 알 수 없다. 또한 신라의 패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신라의 승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확인된다.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매소성 전투 및 a와 b의 기사는 서술방식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 모두 신라가 승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놓은 『삼국사기』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당전쟁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 즉 서술방식에는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의도란 신라가 승리한 경우에는 쟁취한 결과물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록함으로써 부각시키는 대신, 신라가 패배한 경우에는 장수를 알 수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함으로써 축소시킨 것은 아닐까? 이는 나당전쟁의 다른 전투에서도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전마 30,380필을 얻었으며’, ‘6천 4십 7명의 목을 베었고 말 2백 필을 얻었다’,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등의 표현에서 나타난 수치는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일단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매소성 전투 기사에 나타난 당군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주의 를 요한다. 신라가 매소성에 입성하면서 그 일대를 포함하여 경기도 북부를 장악하며 얻은 전리품이 말 30,380필이라면, 이는 일리 있는 수치이고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경기도 북부에 있는 산성 안에 병력 20만 명은 차치(且置)하더라도, 말무덤만을 쌓아놓은 경우가 아닌 이상 말 30,380필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신라는 획득한 전리품을 분명 세어 보았을 것이고, 그 수치를 기록하여 남긴 사료를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참고 하였다면, 당군 20만 명은 매소성 일대 중심의 경기 북부에서 획득한

말 30,380필에서 추측하여 기록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결국 필자는 매소성 주둔 당군 20만 명이란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말 30,380필’이라는 사실적 내용을 토대로 당군의 병력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 나당전쟁을 종결시키는 신라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본다. 즉, 당군 20만 명은 당시까지 한반도 전선에 투입되었던 모든 당군, 또는 적어도 매소성을 필두로 지금의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당군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매소성에 주둔했던 당군은 실제로 20만 명이 아니었다고 보고, 이를 염두에 두면서 매소성의 위치를 파악해 보자. 신라가 매소성 전투를 통해 얻은 말 30,380필을 경기도 북부의 전선(戰線)에서 획득한 것으로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경우 최소한 당의 한반도 투입 병력은 30,380명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당군 병력의 최소한을 대략 3만 명 정도로 보자는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당의 이근행 부대는 매소성에 주둔하였다고 보자. 매소성에 주둔했을 병력의 최대한을 3만 명 정도로 보자는 것이다.¹⁶⁾ 이상에서 최소와 최대를 절충하면, 매소성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병력 최대 3만 명 + α ’의 수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연천 대전리 산성과 양주 대모산성에 각각 적용해 보겠다.

15) 매소성 주둔 당군 병력의 수치 또는 한반도 전선에 투입된 당군 병력의 수치를 연구한 선학들의 성과는,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당군 최대 4~5만 명 추산 : 민덕식, 앞의 논문, 1989, 171쪽;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1997, 247쪽.
- ② 당군 최대 10만 명 추산 : 拜根興,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98~99쪽.
- ③ 당군 최소 10만 명 이상 추산 : 이상훈, 「羅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羅의 역할」, 『東北亞歷史論叢』 32, 동북아역사재단, 2011, 346~347쪽.

16) 당군은 통상 1개 행군의 경우 수천~3만 명 정도로 편성되는데, 표준 행군인원은 2만 명이다. 1개 행군의 장수는 행군총관으로 임명되고 복수의 행군을 거느리는 장수는 행군대총관으로 임명된다.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臺北 : 文津出版社, 1995, 141~145쪽; 이상훈, 앞의 논문, 2011, 346쪽 재인용.

연천 대전리 산성은 규모 자체가 큰 편이 아니므로, 3만 명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¹⁷⁾ 그러나 성 바깥에서 기마병을 비롯한 상당수의 병력들이 진을 치고 지낸다고 보면, 2월부터 9월까지 '3만 명 + α '를 수용할 공간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또한 식수 등 생활용수를 주변에 있는 한탄강(漢灘江)과 신천(莘川)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적진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위험 부담과 함께 보급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상기할 때, 당군의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되는 곳은 양주 대모산성 보다는 연천 대전리 산성이다. 왜냐하면 인접한 한탄강으로 인하여 북쪽으로의 후퇴가 양주 대모산성에 비해 용이하고, 후퇴 이후 추격해오는 신라군이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서쪽의 칠중성 방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동 방법으로 육로와 수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양한 대비책이 존재한다.

보급에 차질이 생겨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각종 변수에 따라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둘 수 있다면, 신라군의 공격에 전혀 대응도 하지 않고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당시의 한탄강 이북 지역부터는 일단 당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 한탄강은 배나 장비를 이용해야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연천 대전리 산성 북쪽의 한탄강 유역은 별다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도강(渡江)하는 것이 용이하다. 안전한 보급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이동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런 점에서 연천 대전리 산성은 후퇴에 대한 압박이 양주 대모산성 보다는 절대 크지 않다.

한편, 양주 대모산성 역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3만 명이 들어갈

17) 연천 대전리 산성은 둘레가 약 680m이고 면적이 약 13,000㎡이다. 성 안에 1㎡당 1명이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대략 1만 3천 명의 병력이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성 내부의 실제 병력은 당연히 이보다는 적은 수치였을 것이다.

공간은 없다.¹⁸⁾ 그러나 연천 대전리 산성과 마찬가지로 성의 외부에서도 병력들이 진을 치고 지낸다면 ‘3만 명 + α ’를 수용할 공간은 충분히 있으며, 북동쪽의 유양천(維楊川)과 남쪽의 어둔천(於屯川) 및 어둔리 저수지 등으로 미루어보아 물의 공급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대신 북동쪽에는 불곡산(佛谷山), 도락산(道樂山) 등이 있고 북서쪽에는 노고산(老故山), 노아산(老兒山) 등이 있어 후퇴할 때는 반드시 이 산들을 피해 북쪽으로만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위험 및 보급의 부담은 연천 대전리 산성보다 양주 대모산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매소성의 기본 조건에는 일단 연천 대전리 산성보다는 양주 대모산성이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매소성 전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 B. 을해년(문무왕 15년, 675)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가 와서 매소천성(買蘇川城)을 공격하니, 원술(元述)이 이를 듣고 죽어서 지난번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드디어 힘껏 싸워서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¹⁹⁾

B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기존의 연천 대전리 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 모두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곳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는 모두 음운 또는 명칭의 유사성 및 당시의 전황 등을 고려하여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곳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별 무리가 없는 것일까? 다른 경우는 제외하고, 매소성과 관련해서는

18) 양주 대모산성은 둘레가 약 1,400m이고 면적이 약 33,000㎡이다. 성 안에 1㎡당 1명이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대략 3만 3천 명의 병력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산술적으로는 3만 명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주 대모산성이 해발 212m의 대모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각종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까지 감안하면, 성 내부의 실제 병력은 분명 3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三國史記』 권43, 「列傳」 3, 金庾信 下, 元述 條. “至 乙亥年 唐兵來 攻買蘇川城 元述 聞之 欲死之以雪前恥 遂力戰 有功賞.”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일단 어떤 학설이든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장소로 전제한 이면에는 A와 B가 같은 사건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과연 A와 B는 같은 사건, 즉 같은 전투에 해당되는지 표를 작성해서 비교해 보겠다.

〈표 1〉 『삼국사기』의 매소성 전투 기사 및 매소천성 전투 기사 비교

	시기 (음력)	장소	공성	수성	결과	원술 참전
A	675년 9월 29일	매소성	신라	당	신라 승리, 당 패배	?
B	675년 ?월 ??일	매소천성	당	신라	신라 승리, 당 패배	○

〈표 1〉을 통해서 A와 B는 같은 전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A와 B는 675년에 벌어진 신라와 당의 전투이며, 결과가 같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다. 기존의 어떤 학설이든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동일 장소로 가정한 이유는 음운과 명칭의 유사성 및 신라가 당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는 점에 너무 주목한 탓일 것이다. 반면, 두 학설 모두 공성과 수성의 주체가 누군지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다.²⁰⁾ 원술은 B에는 참전하였지만, A에서는 참전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A와 B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와 함께 B는 언제 일어난 전투이며, 원술이 A에는 참전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서 필자는 A의 경우 매소성에 있던 당군이 신라군의

20) 본고의 심사과정에서 A의 경우 ‘李謹行 率兵二十萬 屯買肖城’은 당의 이근행 부대가 매소성 주변에 진을 치자 매소성에 있던 신라군이 공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뒤에서 다룰 『자치통감』의 기록, 즉 사료 G의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屯新羅之買肖城 以經略之 三戰皆捷’은 675년 2월의 기록이며, 같은 해 9월에 발생한 A보다 앞선 기록이고, 중간에 한·중 사서에서 어떠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A의 공성 주체는 신라, 수성 주체는 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격을 감지하고, 결국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퇴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의문사항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① A와 B가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순서를 'A→B'로 볼 수는 있어도 'B→A'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675년 2월부터 9월 29일 사이에 신라군 주둔 성에서 벌어진 전투를 신라가 이겼는데, 675년 9월 29일의 성내 주둔 병력은 당군이고 이를 탈환하려고 신라가 공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B가 A 이전의 사건이 확실하다면 B와 A의 중간에 신라의 패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논리 전개에서 B에 원술의 공적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게다가 A는 전공자와 전사자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전리품에 대한 기록만 있다. 그 이유는 보급 사정 악화에 따른 당군의 후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따르면 당연히 원술의 공적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유신(金庾信)의 아들인 원술이 참전해서 공을 세우고 이긴 전투라면, 『삼국사기』 편찬자의 성격상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다. 따라서 원술이 공을 세워 상을 받은 시점 역시 A 이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원술은 A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시기의 순서는 'A→B'가 타당하다고 해도 A와 B가 같은 장소라면, A와 B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한·중 사료에 나타난 나당전쟁기의 모든 전투를 살펴보면, 수전인 기벌포 전투를 제외하고 육전은 모두 음력 1월부터 음력 9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벌어졌다.²¹⁾ 이는 겨울인 음력 10·11·12월을 피한 것임을 감안할 때, A가 음력 9월 29일의 전투이므로 B는 음력 10월 초순(또는 중순)의 전투일 것이다. 이 짧은 간격 안에 A에는 참전하지 않았던 원술이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B에는 참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21) 이상훈, 앞의 책, 2012, 121쪽 <표 9> 참조.

무리가 있다. B 이전까지 원술은 672년 8월 석문(石門) 전투에서 신라군이 패할 때 죽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태백산(太伯山)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²²⁾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태백산에 있던 원술이 B에 참전하였다면, 태백산의 위치가 지금의 태백산이든 아니든 간에 A 이후 전황의 소식을 듣고 결심하여 가는데 걸린 시간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A 이후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당군은 곧바로 매소성 주변의 아달성(阿達城), 적목성(赤木城), 석현성(石峴城) 등을 공격하여 신라에 큰 타격을 주었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도 A와 B가 같은 장소라면, B에서 원술이 세웠다는 공은 사실상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①의 가정은 성립 가능성이 희박하다.

② 이제 A와 B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가정하자.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기의 순서는 ‘B→A’가 아닌 ‘A→B’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①의 가정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A는 원술이 공을 세우기 전의 전투, B는 원술이 공을 세운 전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와 B가 각각 지금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A와 B에 나타난 지명, 즉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비교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고대의 음가가 현재에도 같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지명 분석은 글자 자체만을 보는 것에 일단 원칙을 두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글자는 ‘매(賈)’로 같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글자는 ‘소(肖)’와 ‘소(蘇)’로 다르다. 그런데 ‘肖’는 ‘소’ 외에 ‘초’로 읽을 수 있고, 뜻을 비교해보면 ‘蘇’와는 연관성이 보이지를 않는다. 고대에도 음운이 같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번째 글자들은 위치 비정에 별다른 도움을

22) 『三國史記』 권43, 「列傳」 3, 金庾信 下, 元述 조.

2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조. 인용 사료 I 참고.

주지 못한다. 마지막 글자인 ‘성(城)’은 산성 또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 결국 A와 B의 유일한 차이점은 ‘천(川)’이다. ‘川’은 A에는 없고, B에만 있다. 다른 장소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여겨진다.

‘川’이란 글자는 ‘강’이나 ‘하천’ 등 ‘물(水)’과 관련된 지명에 자주 쓰인다. 따라서 B, 즉 매소천성은 ‘물’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지역으로 보면서 유력한 위치로 지목하였던 곳은 연천과 양주였는데, 지역 특성상 ‘물’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연천이다. 연천 대전리 산성 주변에는 한탄강과 신천이 흐르고 있다. 강과 하천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다. 양주 대모산성은 주변에 유양천, 어둔천 등이 있긴 하지만 ‘川’을 지명으로 쓰기에는 약한 감이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연천 대전리 산성과 양주 대모산성 이외의 다른 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소천성은 연천 대전리 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매소성은 과연 어디일까?

기존의 연구에서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지역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첫 글자가 같다는 것과 음운의 유사성에 있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매소성과 매소천성이 다른 지역이라면, 첫 글자가 같고 음운이 비슷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당시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었거나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매소성과 매소천성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다른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²⁴⁾ 양주는 연천과 가까운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매소성이 양주 대모산성일

24) 이처럼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삼국사기』의 「잡지」에 실려 있는 지명들처럼 통치주체와 시대가 달라지면서 명칭과 표기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편찬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삼국사기』 내에서 동일한 성이나 지역을 동시대에 다른 명칭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능성 역시 높다.

나. 『삼국사기』 「잡지」의 매소성 관련 지명 분석

‘매소성’ 관련 사료로 위치에 대한 단서가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 C. 매성군(買省郡) - 마홀(馬忽)이라고도 한다.²⁵⁾
- c. 내소군(來蘇郡)은 본래 고구려 매성현(買省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견주(見州)이다.²⁶⁾

C와 c에 나타난 매성군과 매성현은 같은 지역이다. 『삼국사기』의 「잡지」는 통일신라의 전체 행정구역을 소개한 뒤, 통일 이전의 지명을 다룬 고구려조와 백제조를 따로 두어 순서대로 대응이 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소성 또는 매소천성과는 어떤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일단 모두 첫 글자는 ‘매(買)’로 같다. 따라서 비교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 글자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성(城)’, ‘현(縣)’, ‘군(郡)’은 행정구역의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가운데 글자에 있다.

‘소(肖)’는 ‘성(省)’과 글자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蘇)’ 또는 ‘소천(蘇川)’의 경우 ‘성(省)’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성군(현)은 매소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매소천성과는 관련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매성군(현)은 매소성과는 관련이 있지만, 매소천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5) 『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조. “買省郡 一云 馬忽.”
 26) 『三國史記』 권35, 「雜志」 4, 地理2, 新羅, 來蘇郡 조. “來蘇郡 本 高句麗 買省縣 景德王改名 今 見州.”

매성군(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와 c에 나와 있는 다른 지명 단서들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단서가 보인다. 바로 ‘마홀’이다. ‘마홀’은 『삼국사기』의 「잡지」 내에 있는 같은 조의 다른 기사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 D. 비성군(臂城郡) - 마홀(馬忽)이라고도 한다.²⁷⁾
- d. 견성군(堅城郡)은 본래 고구려 마홀군(馬忽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포주(抱州)이다.²⁸⁾

C, c, D, d에 나타난 지명들이 현재의 어디를 언급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현대로 올수록 지명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잘 수록한 사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1530년에 간행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 양주목(楊州牧)

동쪽으로 포천현(抱川縣) 경계까지 25리이고, 또 같은 현 경계까지 22리가 되기도 하며, 가평현(加平縣) 경계까지는 96리이고, 광주(廣州) 경계까지 75리이다. 남쪽으로는 광주 경계까지 67리이고, 또는 82리가 되기도 한다. 서쪽으로는 고양군(高陽郡) 경계까지 40리이고, 파주(坡州) 경계까지는 33리이다. 북으로는 적성현(積城縣) 경계까지 22리이고, 마전군(麻田郡) 경계까지 58리이며, 연천현(漣川縣) 경계까지 74리인데, 서울과의 거리는 56리이다.

건치연혁 : 본래 고구려 매성군인데, 창화군(昌化郡)이라 하기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내소(來蘇)라 고쳤다. 고려 초에는 승격하여서 견주라 하였고, 현종 9년에는 양주에 예속하였다. 본조 태조 3년에 도읍을 한양부(漢陽府) - 곧 옛 양주 - 에 정한 다음, 부의

27) 『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注. “臂城郡 一云 馬忽.”

28) 『三國史記』 권35, 「雜志」 4, 地理2, 新羅, 堅城郡 注. “堅城郡 本 高句麗 馬忽郡 景德王改名 今 抱州.”

관아를 동촌(東村) 대동리(大洞里)에 옮기고, 강등하여 지양주사(知楊州事)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승격하여 부(府)로 만들었다. 6년에 또 부치(府治)를 견주 옛터에 옮기고, 그대로 양주라 불렀다.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도호부로 고쳤다. 세조 12년에 승격하여서, 목(牧)으로 만들고 진(鎭)을 설치하였다.²⁹⁾

F. 포천현(抱川縣)

동쪽으로 가평현 경계까지 18리이고, 서쪽으로 양주 경계까지 30리이며, 남쪽으로 같은 주 경계까지 36리이며, 북쪽으로 영평현(永平縣) 경계까지 26리인데, 서울과의 거리는 97리이다.

건치연혁 : 본래 고구려 마홀군인데 일명 명지(命旨)라 하기도 한다. 신라에서 견성군이라 고쳤고, 고려 초기에 포주라 고쳤다. 성종 14년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에 파하였다. 현종 9년에 양주에 예속시켰고, 명종이 감무를 설치하였다. 본조 태종 13년에 현감으로 고쳐 만들었다.³⁰⁾

제시된 E, F를 보면 C, c, D, d의 내용이 건치연혁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방위 및 거리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어 현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C, c, D, d, E, F에 나타난 지명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楊州牧 조. “楊州牧 : 東至抱川縣界二十五里 至同縣界二十二里 至加平縣界九十六里 至廣州界七十五里 南至同州界六十七里 至同州界八十二里 西至高陽郡界四十里 至坡州界三十三里 北之積城縣界二十二里 至麻田郡界五十八里 至漣川縣界七十四里 距京都五十六里 / 建置沿革 本 高句麗 買省郡 一云 昌化郡 新羅景德王改來蘇 高麗初陞見州 顯宗九年屬楊州 本朝太祖三年定都于漢陽府 卽古楊州 移府治于東村大洞里 降爲知楊州事 未幾 復陞爲府 六年又移府治于見州古址 仍稱楊州 太宗十三年例改 爲都護府 世祖十二年陞 爲牧置鎭.”
- 3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抱川縣 조. “抱川縣 : 東至加平縣界十八里 西至楊州界三十里 南至同州界三十六里 北至永平縣界二十六里 距京都九十七里 / 建置沿革 本 高句麗 馬忽 一云 命旨 新羅改堅城郡 高麗初改抱州 成宗十四年置團練使 穆宗八年罷之 顯宗九年屬楊州 明宗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改 爲縣監.”

〈표 2〉 ‘마홀(馬忽)’의 지명 변천

옛 지명	고구려	통일신라 (경덕왕 이후)	고려	조선	위치 비정 (현재 행정구역)
마홀 (馬忽)	매성군·현 (買省郡·顯)	내소군 (來蘇郡)	견주 (見州)	양주목 (楊州牧)	경기도 양주시 양주1동
	마홀군·현 (馬忽郡·顯)	비성군 = 견성군 (臂城郡) = (堅城郡)	포주 (抱州)	포천현 (抱川縣)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마홀’은 음을 고려하면 순수 고구려어를 한자로 옮긴 지명일 수 있고, 뜻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명일 수 있다. 고대의 경기도 북부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고구려와 신라의 전투, 신라와 당의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곳곳에서 말무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구역이었던 ‘마홀’이 고구려의 어느 시점에서 ‘마홀군(현)’과 ‘매성군(현)’으로 갈라졌다. E의 ‘동쪽으로 포천현 경계까지 25리이고’라는 말을 볼 때, ‘마홀군(현)’과 ‘매성군(현)’은 인접지역으로 과거에는 하나의 구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구려가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다만, ‘마홀군(현)’이 ‘마홀’이라는 지명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고구려 통치 시기에는 ‘매성군(현)’보다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 있는 백제나 신라의 공격을 대비하자면, 방위를 고려할 때 앞(남쪽)에 있는 지역은 저지선, 뒤(북쪽)에 있는 지역은 주변을 관할하던 치소(治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물론 C, c, D, d, E, F에서 고구려의 ‘군’과 ‘현’이 행정구역으로서 어떤 기능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같은 지명이 어떤 경우는 ‘군’, 어떤 경우는 ‘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군현제 실시 여부나 실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삼국사기』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찬자들이 고구려 지명을 ‘군’과 ‘현’으로 표기한 것은 후대인의 관점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고구려 지명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표기되었든 그 의미와 기능을 살피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어찌 되었든 ‘마홀군(현)’은 통일신라 때 지명이 ‘비성군’ 또는 ‘견성군’으로 바뀐다. ‘비(臂)’와 ‘견(堅)’의 글자 모양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성군과 견성군은 동일 장소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마홀군(현)’은 <표 2>에서 보다시피 고려시대에 ‘포주’, 조선시대에 ‘포천현’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F에 소개된 타 지역과의 방위 및 거리를 계산하면, ‘마홀군(현)’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반월산성(半月山城)이 있다. 그러나 이를 매소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주나 연천이 아니라는 점도 그렇고, 매소성 전투를 상기했을 때 당군이 신속하게 당의 영역으로 후퇴할 수 있는 곳이 포천 일대에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홀군(현)’은 매소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매성군(현)’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 ‘견주’, 조선시대에 ‘양주목’으로 지명이 바뀌었는데, F에 소개된 타 지역과의 방위 및 거리를 계산하면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양주1동에 해당된다. 양주역 옆의 양주1동 주민센터에서 길을 따라 서쪽으로 약 5km를 가면 양주 대모산성이 있다. 따라서 매성군(현)은 매소성과 관련이 있으며, 매소성은 바로 양주 대모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연천 대전리 산성을 살펴보겠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문헌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그 유래를 짐작하기 곤란하다. 연천의 지역적 특성이 기록된 기사는 간혹 보이지만,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치환해 보면 대부분 한탄강 이북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탄강 이남인 연천 대전리 산성과는 어떤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양주에 대한 기사는 풍부한 편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만

보더라도 양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권지11에서는 양주목조가 가장 분량이 많다. ⑤의 ‘목(牧)으로 만들고 진(鎭)을 설치하였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은 연천 보다 양주가 더 높다.

이상에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소성과 매소천성은 동일한 지명이 아니다.

둘째, 매소성은 양주 대모산성이며, 매소천성은 연천 대전리 산성이다.

3. 매소성 전투의 실상

이제 매소성 전투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매소성 전투가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에 벌어진 신라와 당의 전투 기록들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전황이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와 관련된 한중 사료를 모두 검토해 보고자 한다.

G. ① 2월 유인궤(劉仁軌)가 신라의 무리들을 칠중성에서 대파하였고, / ② 또 말갈(靺鞨)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라의 남쪽 경계를 경략하게 하니, 목을 베고 붙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 ③ 유인궤의 군사가 돌아왔다. 조서(詔書)를 내려서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로 삼고 / ④ 신라의 매소성에 주둔하여 이를 경략(經略)하게 하였는데, 세 번 싸워서 모두 승리하자 / ⑤ 신라는 마침내 사신을 파견하여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또 사죄하였으며, 황상은 이를 사면하고 신라왕 김법민(金法敏)의 관작(官爵)을 회복시켰다. 김인문(金仁問)이 중도(中途)에서 돌아오니 임해군공(臨海郡公)으로 고쳐서 책봉하였다.³¹⁾

H. ①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 ② 인궤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고, 조서로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
 ㉔ 다스리게 하였다. / ㉕ 왕은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치고 또
 한 사죄하였다. 황제는 용서하고 왕의 관작을 회복시켰다. 김인문
 은 오는 길에 [당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를 임해군공으로 고쳐서
 봉하였다.³²⁾

- I. 가을 9월에 설인귀가 숙위학생(宿衛學生) 풍훈(風訓)의 아버지 김
 진주(金眞珠)가 본국(本國)에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풍
 훈을 길을 이끄는 사람으로 삼아 천성(泉城)을 쳐들어왔다. 우리
 장군인 문훈(文訓) 등이 맞서 싸워 이겼는데, 1천4백 명의 목을 베
 고 병선(兵船)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가
 자 전마 1천 필도 얻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
 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도망가게 하고는
 전마 30,380필을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이처럼 이르렀다. 사
 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안북하(安北
 河)를 따라 관(關)과 성(城)을 설치하였고, 또한 철관성(鐵關城)을
 쌓았다. 말갈이 아달성(阿達城)에 들어와 위협하고 노략질하자 성
 주(城主) 소나(素那)가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당나라 군사가 거란
 과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둘러쌓았지만 이기지 못하였
 고, 소수(小守) 유동(儒冬)이 죽임을 당하였다. 말갈이 또한 적목성
 (赤木城)을 에워싸서 없애드렸다. 현령(縣令) 탈기(脫起)가 백성을
 거느리고 막아 지키다가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당나라 군사가
 또한 석현성(石峴城)을 둘러싸고 쳐서 빼앗았는데, 현령(縣令) 선
 백(仙伯)과 실모(悉毛)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또한 우리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크고 작은 열여덟 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는데, 6천 4십 7명의 목을 베었고 말 2백 필을 얻
 었다.³³⁾

31) 『資治通鑑』 권202, 「唐紀」 18, 高宗 上元 2년 2월조. “㉔ 二月 劉仁軌 大破 新羅
 之衆 於七重城 / ㉕ 又使 鞞鞞浮海 略新羅之南境 斬獲甚衆 / ㉖ 仁軌引兵還 詔以李
 謹行爲安東鎮撫大使 / ㉗ 屯新羅之買肖城 以經略之 三戰皆捷 / ㉘ 新羅乃遣使入貢
 且謝罪 上赦之 復新羅王法敏官爵 金仁問中道而還 改封臨海郡公”.

32)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2월조. “㉔ 二月 劉仁軌 破我兵 於
 七重城 / ㉕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 ㉖ 以經略之 / ㉗ 王乃遣使入
 貢 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金仁問中路而還 改封臨海郡公”.

G는 중국 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이고, H와 I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G·H·I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675년의 나당전쟁 기록 비교 : 『자치통감』과 『삼국사기』

		『자치통감』 (1084년 완성 / G)	『삼국사기』 (1145년 편찬 / H, I)
675년 2월 칠중성 전투 (G, H)	Ⓐ	당의 유인계 부대 - 칠중성에서 신라군 격파	
	Ⓑ	말갈의 남쪽 경계 경략 ³⁴⁾	×
	Ⓒ	i) 유인계 부대 → 당 귀환 ii) 이근행 → 안동진무대사	
	Ⓓ	이근행의 매소성 주둔 및 경략 < 3전 전승 >	이근행의 (칠중성) ³⁵⁾ 경략 < ? >
	Ⓔ	i) 신라 - 당에 사죄사 파견 및 공물(= 특산물) 진상 ii) 당 - 문무왕 김법민의 관작 회복 김인문의 당 귀환 및 임해군공 책봉	
675년 9월 (I)	×	천성 전투 매소성 전투	

3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조. “秋九月 薛仁貴 以宿衛學生 風訓之父 金眞珠 伏誅 於本國 引風訓 爲鄉導來 攻泉城 我將軍 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 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二十九日 李謹行 率兵二十萬 屯買省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遣使入 唐 貢方物 緣 安北河 設關城 又築鐵關城 靺鞨 入阿達城 劫掠 城主 素那 逆戰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 儒冬 死之 靺鞨 又圍赤木城 滅之 縣令 脫起 率百姓 拒之 力竭俱死 唐兵 又圍石峴城 拔之 縣令 仙伯 悉毛等 力戰死之 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34) 이 부분은 『신당서』와 『자치통감』의 원문이 다르다. 『신당서』에는 ‘말갈의 남쪽 경계경략(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新唐書』 권220, 「列傳」 145, 東夷, 新羅, 上元 2년 2월조)’으로, 『자치통감』에는 ‘말갈의 신라 남쪽 경계경략(又使靺鞨浮海略新羅之南境. 『資治通鑑』 권202, 「唐紀」 18, 高宗 上元 2년 2월조)’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말갈이 신라의 남쪽 경계를 경략했다는 말은 지금의 전라도나 경상도에 말갈이 침입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당시 신라의 실제 지배영역과 전황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신당서』의 내용이 바르기에, 이를 채택하였다.

35) 원문 ㉔부분에는 없지만 인용 사료 H 전체, 즉 『삼국사기』의 내용으로 볼 때 전후 문맥상 이근행이 칠중성을 다스린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675년 2월의 칠중성 전투에 대해 살펴보자. 이 전투의 기사는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에 모두 실려 있는데,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는 내용이 같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와 ㉤는 문제가 있다.

㉣는 말갈이 바다를 건너 남쪽 경계를 경략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신라인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남쪽 경계를 당의 남쪽 경계로 해석하면, 이는 신라의 북쪽 경계에 해당되고, 대체로 경기도 북부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 이후임을 감안하면 칠중성을 기준으로 남쪽 경계가 되는데, 이는 양주 일대가 되므로 매소성을 양주 대모산성으로 본 필자의 견해와 부합된다. 왜냐하면, 675년 2월부터 9월 사이의 어느 시점에 매소성은 당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는 『자치통감』에만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아무래도 신라가 전투에서 패한 내용인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자치통감』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달라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해당 부분의 원문을 발췌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자치통감』의 ㉣ : 屯新羅之買肖城以經略之 三戰皆捷

『삼국사기』의 ㉣ : 以經略之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치통감』에는 있는 글자들이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다. 『자치통감』이 1084년에 완성되었고, 『삼국사기』가 1145년에 편찬되었으니,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은 『자치통감』을 분명 원자료로 참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자치통감』을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치통감』에 실렸던 내용은 『삼국사기』에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즉, 『삼국사기』의 ㉔대로라면, ‘之’가 가리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근행이 경락을 한 장소는 칠중성 주변으로 국한된다. 그렇지만, 이는 내용상 모순된다. 675년 2월에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격파하였는데, 곧바로 이근행이 다시 칠중성을 경락하였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매소성이 당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는 ‘(이근행이) 신라의 매소성에 주둔하며 이 지역을 경락하였는데, 세 번 싸워 세 번 이겼다’라는 『자치통감』의 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이 승리하고 신라가 패배한 전투를 『자치통감』이 누락시킬 까닭은 없다. 반면, 『삼국사기』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신라의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까지 당의 수중에 들어갔다면, 당의 다음 목표는 지금의 서울 한강 유역이 되기 때문이다. ㉔에서 문무왕이 사죄사를 파견하고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살펴본 675년 2월 칠중성 전투 이후 전쟁은 한 동안 소강상태였다가 675년 9월에 재개되는데, 675년 9월 전투의 기록을 『자치통감』을 비롯한 중국 사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의 경우와는 반대, 즉 당의 패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675년 9월 전투의 실상은 I, 즉 『삼국사기』를 통해서만 추정해야 한다.

〈표 4〉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675년 9월의 나당전쟁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매소성 전투의 실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표 4〉에서 제시된 각 전투들이 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전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개별 전투인 ‘매소성 전투’와 구별하기 위해 ‘매소성 전역(戰役)³⁶⁾’이라는 용어를

36)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鬥」, 『新羅文化』 29,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07, 118쪽; 앞의 책, 2012, 223쪽. ‘매소성 전역’은 이상훈이 제시한 용어를 필자가 수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매소성 전투 전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표 4〉 『삼국사기』 수록 675년 9월의 나당전쟁 관련 기사 정리

시기 (음력)	전투 장소	위치 비정 (현재 행정구역)	당군 구성	승리	패배	순서	
675년 9월	천성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설인귀 함대	신라	당	1	
	당군 1천4백 명 참수 / 병선 40척 · 전마 1천 필 획득						
675년 9월 29일	매소성	경기도 양주시 양주1동	이근행 부대	신라	당	2	
	전마 30,380 필 및 이에 상응하는 병장기 획득						
675년 9월 29일 이후	당에 사신 파견 및 공물(= 특산물) 진상					3	
	안북하를 따라 관 · 성 설치 / 철관성 축조					4	
	아달성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말갈	당	신라	5	
	칠중성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당병 거란 · 말갈	신라	당	6	
	적목성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	말갈	당	신라	7	
	석현성	미상	당병	당	신라	8	
	?	?	당병				
	18전 전승 (당군 6,047명 참수 / 전마 2백 필 획득)				신라	당	9

먼저 675년 9월 천성 전투는 지금의 파주 오두산성 일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라군이 승리하면서 병선 40척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전(河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군 1천4백 명의 목을 베었고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가자

있었던 전투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에 있다. 그러나 이상훈과 필자는 차이가 있다. 이상훈은 675년 9월 천성 전투부터 676년 7월 도림성(道臨城) 전투까지를 매소성 전역의 범위로 규정한 반면, 필자는 매소성 전투를 포함하여 675년 9월에 벌어진 전투만을 매소성 전역의 범위로 보았다. 필자가 이상훈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차이를 둔 까닭은 다른 전투들과 달리 지금의 강원도 통천 일대로 추정되는 도림성 전투의 경우, 매소성 전투로부터 발생 시점과 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벌어졌던 아달성 · 적목성 전투와는 공격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격 주체가 아달성 · 적목성 전투는 말갈이고 도림성 전투는 당병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도림성 전투를 매소성 전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마 1천 필을 얻었다는 내용에서 육전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사자나 전리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천성 전투는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675년 2월 칠중성 전투에서 패배한 신라가 천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전쟁 준비를 매우 잘하였음도 엿볼 수 있다.

천성 전투가 끝나자 곧바로 매소성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매소성에는 당의 이근행 부대가 675년 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주둔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보급이 큰 문제였을 것임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천성 전투에서 당군이 패하고 매소성이 신라군의 공격을 받자 이근행 부대는 즉시 후퇴하였다는 점에서 천성 전투에 투입된 당의 대규모 함대에는 전투선단 이외에 보급선단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사료에 보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보급 목적의 군사적 활동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가 걸림돌이 된다.

또한 보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하역 장소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투선단이 먼저 앞장을 서고 보급선단은 뒤에서 거리를 두고 따르다가 전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하역을 하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군의 영역에 하역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매소성 전투 이후 이근행 부대는 어떻게 보급 문제를 해결하였을까? 최소한의 필요 장비만 휴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린 다음, 후방의 보급 기지로 이동하여 보급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다.³⁸⁾

37) 신라가 획득했다는 1천 필의 말이 물에 빠져 죽거나 다친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기병의 활용 목적과 보급 목적을 모두 상정할 수 있다.

38) 심사과정에서 안동진무대사 이근행은 당의 장수로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며 매소성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전쟁수행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단 순히 보급 문제 해결을 위해 3만 필의 말을 남겨둔 채 많은 병력의 군사를 거느리고 후퇴하였다고 보는 것은 많은 전쟁 경험을 지닌 당군의

후방의 보급기지는 지리적인 면을 감안하면 칠중성 앞 적성 가여울 건너편부터 예성강 하구 사이, 즉 지금의 개성(開城)직할시 일대 또는 경기도 개풍군(開豐郡) 일대로 추정된다.³⁹⁾ 이 경우가 아니라면 안동 도호부(安東都護府)가 있었던 평양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근행 부대는 보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매소성을 포기하였고 더 북쪽에 있는 칠중성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 전투 직후 곧바로 당병·거란·말갈이 칠중성을 둘러싸고 공격하였다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신라는 천성 전투와 매소성 전투에서 이기고도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료로 인하여 알 수가 없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신라는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하였고, 철 관성을 쌓았다. 안북하는 뒤에 등장하는 석현성과 함께 『삼국사기』에서 편찬 당시인 고려시대에도 어디인지 알 수 없던 곳⁴⁰⁾으로 분류했는데, 한자의 뜻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탄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준을 저평가하고 민족사적 관점에서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근행은 한반도 및 토번 전선에서 큰 활약을 하였던 당의 말갈 출신 번장(蕃將)이다. 따라서 많은 전쟁 경험을 지닌 이근행의 당군이 3만 필의 말을 남겨둔 채 후퇴한 것은,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만큼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 절대 이근행의 당군을 저평가한 것이 아니다. 중국 사서들을 확인해 보면 매소성 전투 이후 이근행은 별다른 처벌 없이 토번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소성에 남겨둔 말 3만 필은 정말 쓸모가 없어진 경우로 이는 중대한 문책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버려진 말들은 소모품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필자는 앞서 매소성 전투를 수적 열세에 있던 신라군이 수적 우세에 있던 매소성 주둔 당군을 획기적인 전략·전술로 공격하여 승리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한 결정적 원인을 당의 후퇴로 본 것인데, 이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승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에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39) 이는 당의 보급선단이 보급품을 하역했던 장소를 예성강 하구로 본 것이다.

40) 『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4, 三國有名未詳地分 조.

보인다. 매소성 전투 바로 다음에 벌어진 아달성 전투와 적목성 전투가 강원도 북부에서 발생한 전투라는 점을 볼 때, 안북하가 한탄강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살펴보자. 매소성 전투 이후 후방으로 이동하였던 당의 이근행 부대는 보급 문제가 해결되자 당시 신라 북쪽의 최전방 기지가 된 칠중성을 공격하였고, 칠중성 공격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자 부대를 나누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 전투가 벌어진 675년 9월 29일은 양력으로 675년 10월 23일이고, 경기도 북부지역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막 추워지기 시작할 무렵임을 감안할 때, 말갈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함경도 지역으로 철수하면서 강원도 북부지역에 있는 아달성과 적목성을 공격하였고, 당병은 석현성⁴¹⁾ 일대를 공격한 뒤 철수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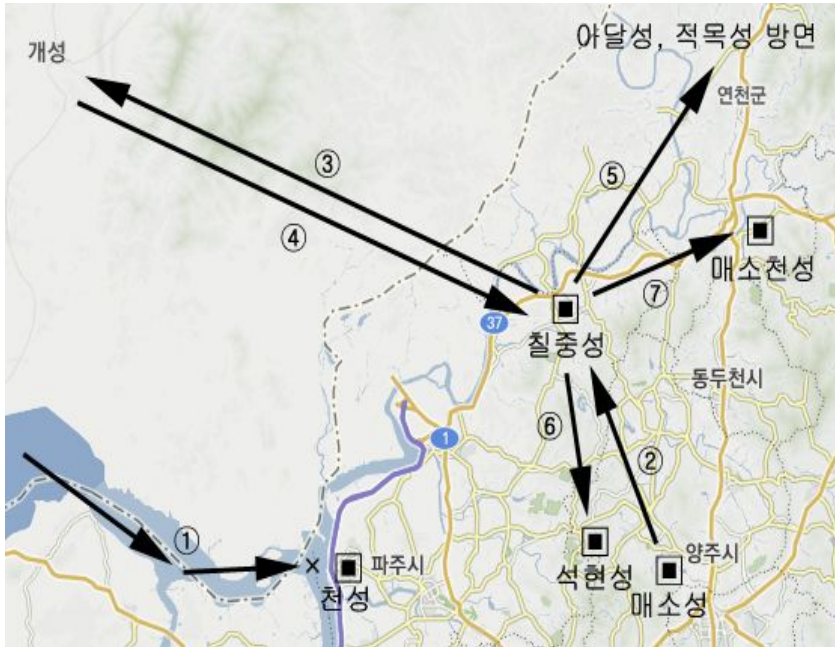
이러한 매소성 전역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석현성 전투 다음에 당병과 18번을 싸워 신라가 모두 이겼으며, 당군 6,047명을 척살하고 전마 2백 필을 획득했다는 내용이다. 석현성 전투 이후이며 말갈이 아닌 당병과 싸웠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경기도 북부에서 벌어진 전투로 추정된다. 필자는 앞에서 매소성 전투와 매소천성 전투는 동일한 전투가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원술이 참전한 매소천성 전투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원술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전장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⁴²⁾

41) 석현성의 위치가 지금의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양주시 장흥면에는 석현리와 석현천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7, 111쪽; 앞의 책, 2012, 217쪽)는 이상훈의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앞서 전개된 아달성·적목성·석현성 전투는 신라가 패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지방관들이 있어 그 이름을 기록에 남겼다. 그렇지만, 원술은 화랑(花郎)이자 김유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사해야 할 전투에서는 죽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공을 세우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전장에서 죽지 않은 채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당대의 신라인들 또는 후대의 고려인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였기에, 전사자와

이상에서 매소성 전투의 실상, 나아가 매소성 전역의 실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지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675년 9월 매소성 전역 당시 당군의 이동 경로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국내 학계에서 평가받아온 매소성 전투의 실상을 복원해 보고자는 취지에서 675년의 나당전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매소성의 위치 비정을 시도하였다.

전리품의 수치만 기록되고 원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동일 장소로 전제하였는데, 필자는 매소성 전투와 매소천성 전투의 경우 공성 주체 및 수성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같은 전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매소성과 매소천성은 다른 장소라고 판단하였으며, 매소성은 양주 대모산성이고 매소천성은 연천 대전리 산성이라고 비정하였다.

한편, 필자는 한중 사서에 실린 매소성 전투 관련 기사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편찬 주체의 입장에 따라 같은 전투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글자를 누락시켜 의미를 축소·은폐하거나 아예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소성 전투를 포함한 675년의 나당전쟁에 대해 신라가 패배한 2월의 칠중성 전투와 신라가 승리한 9월의 매소성 전투 및 그 이후의 매소천성 전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끝으로 매소성 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교전 없이 전과를 얻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앞서 벌어진 천성 전투에서 사력을 다한 신라군의 활약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한국전쟁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1차 거란 침입에서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되었던 서희의 외교담판과 비교해볼 경우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나당전쟁은 신라와 당의 의지 및 선택이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반영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실로, 신라와 당 이외에 고구려와 백제 유민·거란·말갈·토번·발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 전역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매소성 전투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당전쟁 종료의 초석(礎石)이 되었고, 신라의 삼국통일과 함께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부여에는 매소성 전투 역시 신라와 당의 의지 및 선택이 반영되었고, 거란과 말갈도 참전하였으며, 고구려·

백제 유민도 참전한 경우가 있었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4.3.5, 심사수정일 : 2014.5.14, 게재확정일 : 2014.5.20)

주제어 : 매소성,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역(戰役), 매소천성, 매소천성 전투,
원술(元述), 양주 대모산성, 연천 대전리 산성, 나당전쟁, 보급

<ABSTRACT>

A Study on the Location and the Actuality of the Maeso Fortress Battle

Kim, Byoung-Hee

The Maeso Fortress Battle(買肖城 戰鬪) has been known as the representative engagement during the war Period between Silla and T'ang(羅唐戰爭) and it led to the end of the war eventually because Silla(新羅) gave decisive damage against T'ang(唐). According to the theory of few referential theses, the theory of Taejon-village Mountain Fortress in Yonchon(漣川 大田里 山城) and the theory of Daemo Mountain Fortress in Yang-Ju(楊州 大母山城)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persuasive points of view generally, which are based on the same premise that The Maeso Fortress(買肖城) and The Maesochun Fortress(買蘇川城) are the identical location. Following hypotheses are set in the process of studying the premise after researching the reference articles in 『SamGuk-SaGi(三國史記)』 and archaeological cases, the expeditionary force's supplying issues after the post-harvest season, changes of the name of the region and etc.

I concluded that the Maeso Fortress and the Maesochun Fortress are not the identical name of the location and the Maeso Fortress is the Daemo Mountain Fortress in Yang-Ju and the Maesochun Fortress is the Taejon-village Mountain Fortress in Yonchon.

The process of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including The Maeso Fortress Battle in 675 could be summarized with overall analyses of articles related to the war in 675 on 『SamGuk-SaGi』 and 『JaChee-TongGam(資治通鑑)』.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in 675 is divided into two phases,

the Chiljung Fortress Battle in Feb and the campaign(戰役) of Maeso Fortress in Sep. Silla was defeated in the first phase. However, Silla prepared well for the next phase. During The Cheon Fortress Battle(泉城戰鬪), Silla defeated the T'ang's fleet led by general Xue Ren-gui(薛仁貴) who had intended to conduct a landing operation and a supply mission for the troop of general Li Jin-xing(李謹行), which forced General Li Jin-xing to retreat. General Li Jin-xing rearranged his troops with T'ang's regular army and T'ang's barbarian forces and then he conducted several battles in northern part of the present Kyunggi-do(京畿道) and Kangwon-do(江原道). In spite of a certain outcome, they had to fall back due to the cold weather ending the campaign of Maeso Fortress. It seems The Maesochun Fortress Battle(買蘇川城 戰鬪)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and Wonsul(元述) took an main role in the battle.

This study focused on the Maeso Fortress Battle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attles during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in 675. The Maeso Fortress Battle had a great effect on contributing to finish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and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The Maeso Fortress Battle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 victory in Korean war history in that there had not been engagement, which could be compared with general SeoHee(徐熙)'s negotiation with the Kitan(契丹).

Key Words : The Maeso Fortress, The Maeso Fortress Battle,
The Warfare of Maeso Fortress, The Maesochun Fortress,
The Maesochun Fortress Battle, Wonsul,
The Daemo Mountain Fortress in Yang-Ju
The Taejon-village Mountain Fortress in Yonchon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supplies